

국내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엄창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서비스본부장

1. 서언

황하를 먼저 차지하는 민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중원의 풍부한 식량과 노동력으로 국력을 키울수 있는 기반이 있고 민심도 안정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면에서 통치가 유리해져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흔히들 경작수렵이 근간이되었던 사회인 농업사회와 산업혁명이 일어나 사회전체가 공업화가 촉진된 이른바 서구형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거쳐온 오늘날 2000년대라는 새로운 정보통신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새 시대를 국가의 기본구도가 정보통신이 중심이 되어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말한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Internet)과 멀티미디어(Multimedia)라는 새

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정성내 정보통신 이용 진흥실이 신설된것이나 미국의 초고속통신망(Information Super Highway) 계획이 발표된 것 등은 이러한 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세계각국에서는 국제화를 달성하고, 개방화를 이겨내고,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에 정보를 무엇보다 중시하여 이를 적극 이용하려는 경향이 사회전반에 걸쳐 충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미래학자가 예견하고 있듯이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뒤떨어지면 후진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이 곧 국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가능하며 아울러 국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

일 것이다. 근래와서 떠들썩한 '멀티미디어'라는 것도 실은 그렇게 신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심화의 한 진보된 단계라 말할 수 있다. 원래 인간은 보다 많은 정보와의 만남을 얻고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뛰어 넘기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을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도화를 추구해 왔다. 이중에서 교통은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등 거리 이동시간의 단축을 실현해 왔고, 통신에서는 음성만으로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 밖에 할 수 없는 전화의 세계로부터, 보다 실제로 만나고 있는 상황과 같은 쌍방향 화상통신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다. 인간의 5감 중 가장 민감한 시각적 감동을 필요시 언제든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현해 주는 것이 바로 멀티미디어인 것이다.

2. 주요 선진국가 데이터베이스 육성정책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화 사회에서 국력의 단면을 상징하는 국가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천연자원이나 인력자원과는 달리 널리 사용한다 해도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놀랄만큼 단축시켜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데, 50년대 후반부터 미연방 정부와 비영리기관이 주도하여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후 통계국, 노동통계국 등이 중심이 되어 각기관별 데이터베이스 기술이전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유통분야 또한 개인용 컴퓨터(PC)의 확대 보급으로 데이터베이스 이용률 확대와 필요시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전준비 의식이 타국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해놓았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보다 조금 늦게 일본과학기술센터(JICST)와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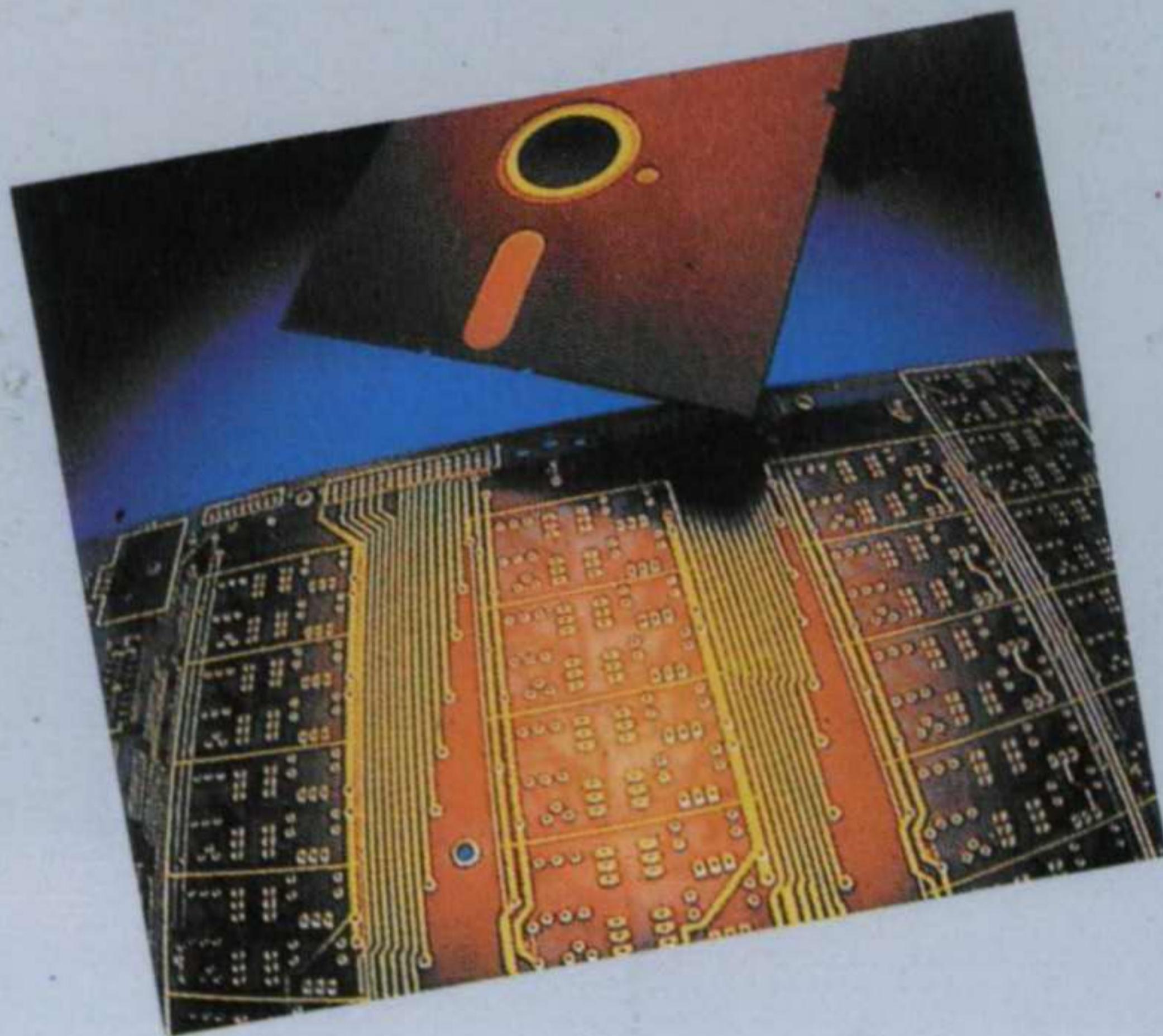
경제신문사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점 육성하여 정보유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 주도의 미니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진국가중 정보화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주로 생활 정보중심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그밖의 영어문화권 선진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나 비영어권 지역이 영어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3. 국내 데이터베이스 환경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정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산업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데이터베이스 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투자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단체가 출현하여 다각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성장을 위한 가닥은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수나 이용자수가 취약하여 이를 중점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보화는 결과적으로 대도시를 중심



으로 촉진해 왔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지방문화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이 구성되어 지방의 특성과 사용자의 기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생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정보이용률 향상 및 국제 경쟁력강화 대책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 또는 성장을 정보수요 측면에서 보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유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관심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의 축적과 분석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과를 무시하고 순간 결과만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용자의 확대인데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간단히 조작하면 추출할 수 있도록 시범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

음로는 영문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해외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제품설명서나 조작 기능을 영문으로 제작하여야 하듯이 우리나라 언어로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루속히 다국적언어로 변환하여 세계시장에서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인물정보나 기업체정보 같은 것을 국제무대에 내놓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영문화하여야만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 편의를 중요시 하여 필요시 데이터베이스 사서함 서비스나 전문검색대행 서비스 같은 신규 부가가치 사업을 중점 육성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 데이터베이스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정책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일본의 우정성 국장이 지적했듯이 첫째,가입자 계통의 광선로를 조기에 구축, 정비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둘째로,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도입 세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한 제도 마련, 새로운 유니버설한 요금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5. 결언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국산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나 금융세계상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민간,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DC